

전주 물놀이시설, '무더위 쉼터' 로

시, 월드컵경기장·한벽문화관 등에 여름철 물놀이시설 무료 운영 가까운 도심 속에서 물놀이 즐기며 더위 식힐 수 있어 '호평' 얻어

가까운 도심에서 썬탠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물놀이시설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과 전주종합경기장 행복한가게 앞, 한벽문화관 등 3개소에 물놀이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특히,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요원 배치로 보다 깨끗한 물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대형 워터슬라이드(길이40m×폭7m×높이7m), 물놀이풀장, 소형슬라이드, 유아풀장 등이 갖춰져 있고, 전주종합경기장에

는 유수풀(가로30m×세로12m×깊이0.9m), 물놀이풀장, 소형슬라이드, 유아풀장, 터널분수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벽문화관 역시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이 가벼운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약 900㎡의 소규모 물놀이 시설을 갖췄

다. 물놀이시설들은 두 시간 단위로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이용해 깨끗한 물 속에서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수영모(캡 등) 및 반바지(래쉬가드 등) 착용을 의무화했다. 물놀이시설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단,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송효철 기자



6일 황희 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장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랑의 성금 365만원을 후원했다.

천사의 도시 전주의 남다른 기부 '눈길'

황희 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장, 셋째 자녀 돌 맞아 저소득 아동 위한 성금 기탁

천사의 도시 전주에 세 아이의 첫돌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황희 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장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랑의 성금 365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성금은 황 센터장의 셋째 자녀인 '초은이'가 태어난 이후 지난 1년간 하루에 1만원씩 모아 첫돌을 맞이해 후원한 것이다. 앞서, 황 센터장은 첫째, 둘째 자녀의 첫돌과

백일 때에도 기부하기도 했다. 황 센터장은 "장애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좋은 분들이 있어 전주가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후원에 주신 우리언어감각 발달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언어적·정서적 발달이 필요한 아동에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인지치료 등 다양한 방법의 치료를 제공하는 우리언어감각발달 센터는 그간 △장애인 아동 영화 관람 문화공연 사업 △저소득 아동 소원 들어주기 사업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조업 중 머리 다친 30대 외국인 선원 이송 군산해경, 헬기 등으로 생명에는 지장 없어

조업 중 머리를 다친 외국인 선원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헬기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일 오전 6시55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여수 선적 대형 트롤러선 A호(139t)에서 머리를 다친 외국인 선원 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경비중인 3000급 경비구난함을 급파했다. 3010함은 오전 8시 20분경 어선 A호와 상봉, 환자 B(34, 인도)씨를 함정으로 이송 후 해양원격의료시스템으로 목포 소재 한국병원으로 연결해 원격진료를 했다. B씨는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와이어에 목 부위를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갑판에 부딪쳐 출혈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환자 B씨는 의식이 있지만,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긴급 이송을 위해 8시45분경 도착한 해경 헬기에 탑승, 9시43분경 익산 모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정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세요"

전주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체교사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가 본인의 질병, 경조사, 보수교육, 연가 등 휴가사용으로 보육 공백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대체교사는 총 39명으로 전주지역 내 54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이며 대체교사 인원 부족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가 우선 지원 받

는다. 단,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과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체교사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 및 전주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063-905-651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순경희 전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모기 개체수 증가... 전주시, 방역소독 대책 강화

9월 말까지 취약지역 방역소독 무더위와 강우로 인해 모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시의 방역소독 대책이 강화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여름철을 맞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기에 의한 감염병인 일본뇌염과 뎅기열,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방역기동반 5명 △동방역반 55명 △방역차량 10대 △포츈기 30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6대를 투입했다. 특히,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모기유충의 주요 서식처

인 정화조와 복개천 등에 유충제 약품을 살포하고 잔류분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활동을 펼쳤다. 보건소는 또 오는 9월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1~2명씩 총 55명의 방역소독 근무자를 배치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의 하수구와 쓰레기 수거함 등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옥마을, △혁신도시(수변·엽순공원), △간성천, 평화동(신성공원), △에코시티(화정공원)를 특별 방역소독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월말까지 주1~2회 방역소독차량을 이용한 잔류분부 소독(7일정도 지속효과)을 진행키로 했다. /송효철 기자

고령 운전자 몰던 차량 돌진... 어린이집 원생 등 5명 부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간이풀장에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어린이집 원생들이 다쳤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경 전주시 덕진구 유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에 A(81·여)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돌진했다. 당시 원생 10여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해당 풀장은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물놀이 하던 B(3)군과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컴퓨터가 갖고 싶어"... 순창 한 교회서 상습절도 20대 입건

순창경찰서는 교회에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간 순창 일대 교회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감시가 소홀하고 문이 열려 있는 교회만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컴퓨터가 갖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